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방향

이태섭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보(노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노동청년) 등 3개 신문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기존의 신년사를 대체하였다. 공동사설은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과 새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 공동사설과 비교하여 올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고조되는 체제 위기

먼저,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인식과 관련하여, 공동사설은 북한의 위기 의식이 매우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사설은 '가장 어려운 환경', '대단히 어려운 내외 환경', '대단히 무겁고 방대한 과업', '어려운 시련', '순탄치 않는 앞길' 등의 표현을 곳곳에서 쓰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의 공동사설이나 그 이전의 신년사와 비교해볼 때 유례 없는 표현들이다. 지난해 공동사설에서는 '의연히 복잡하고 긴장된 환경', '어려운 환경', '어렵고 방대한 과업'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는 인식이다.

그런데 공동사설은 북한이 직면한 난국(難局)의 원인을 '적들과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과 집요한 경제 봉쇄, 전례없는 자연 재해'로 돌리고 있다. 체제 내적 모순이나 지도부의 실정(失政)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5년도에 경우, 자연 재해를 제외하면,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경제 봉쇄와 같은 외적 조건은 1994년도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결국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 그것은 외적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 등 북한의 체제 내적 위기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사설은 체제 위기의 가장 주된 요소인 경제난 해소에 역점을 두기보다, 정치 사상과 군사 부분에 역점을 두어 현금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려 하고 있다. 경제 발전보다 체제 안정과 유지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하는 일종의 위기 관리 체제인 셈인데, 공동사설은 그 실천 과제로서 정치 사상, 경제, 군사 등 「사회주의 3대 진지 강화론」을 제시하고 있다.

수세적인 「사회주의 3대 진지 강화론」

우선 경제 부문의 경우, 식량 등 경제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혁명적 경제 전략'을 되풀이 하면서 농업·경공업·대외 무역과 그 돌파구로서 석탄·금속·철도 운수와 같은 선행 부문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개혁이나 개방 등 경제 정책 상의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경제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년사에서 경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43%, 1995년 16%, 올해는 8%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체제 유지 등 정치적 목표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경제난의 해소를 위한 색다른 방안을 제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군사 부문의 경우, "인민 군대의 총창 위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 조국의 안전도 있다"고 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군사 중시 기풍, 전인민적 방위 체계, 군민 일치 운동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군부의 영향력과 군사 활동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더욱 증대될 것임을 시사한다. 김정일을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군부 주도의 위기 관리 체제이다. 그러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북한이 3대 진지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치 사상 진지이다. 따라서 올해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 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라 당

의 정치적 역할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사설은 당의 역할 증대를 '사회주의 3대 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 열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동사설은 '수령'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당과 전체 주민의 정치사상적 통일 단결, 일심 단결을 강조하면서, 이를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김일성의 유훈'으로 설정하고 있다. 수령을 유일 중심으로 한 정치사상적 통일 단결은 북한이 모범으로 삼는 항일 빨치산의 '혁명 전통'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규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사설은 북한의 혁명 역사가 '도덕 의리의 위력으로 승리' 해왔음을 지적하면서, 혁명적 의리와 도덕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백두밀립의 혁명 정신'으로 표현되고 있다.

「백두밀립의 혁명 정신」 강조

첫째, '백두밀립에서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7연대 결사 용위 정신'이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효성은 혁명 전사들의 도덕 의리의 최고 표현으로 간주된다. 공동사설은 전당·전군·전민을 모두 수령의 혁명 전사로 규정하면서, '수령 김정일에 대한 혁명적 의리 = 절대적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공동사설이 시종일관 혁명 전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은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전사 공동체 개념을 통해, 군부를 기축으로 하여 김정일의 권위를 절대화함으로써 체제 안정을 도모해 보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서 수령은 항일 혁명 투쟁에 역사적 정통성을 둔 존재로서, 혁명 전통 즉, 주체의 '혈통'을 이어가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김일성은 군 → 당 → 정 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권력을 장악해나갔는데, 외형 상의 공식 직함으로 볼 때 김정일 역시 이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한 형국이다. 즉, 김정일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권 장악에 주력해온 데 이어, 올해의 공동사설은 김정일을 당의 '수반'으로 호칭함으로써, 당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서 김정일의 당권 장악 정도가 확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사설이 '이미 오래 전에 영도의 계승 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 '당과 인민의 공인된 영도자', '영원한 최고사령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외부의 평가와는 달리 김정일의 권력 장악에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 총비서에 공식 추대되는 절차 상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공동사설이 올해가 김일성 사망 3년째 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주창준 駐中 북한 대사의 기자회견(1월 3일) 내용을 근거로 하여, 김일성 사망 2주기 추도식(7월 8일) 이후 김정일의 공식 승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김정일의 승계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백두밀립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 정신'이다. 이는 '그 어떤 안락도 바라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추호의 동요와 패배주의도 없이 사회주의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고군분투해 나가는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이다. 김정일의 표현을 빌자면, "지난날 항일 혁명 투사들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고 풍찬노숙하면서 굴함없이 싸운" 혁명 전통의 계승이다.

결국, 북한은 도덕 의리와 같은 감성으로 굳게 결속된 항일유격대식 전사공동체(최고사령관 - 전사 - 인민)를 통해, 경제 위기 등 '가장 어려운 환경'을 타개해나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난과 같은 총체적 난국을 내부 결속력 증대를 통해 타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공동사설이 붉은 기, 군사, 정치 사상, 일심단결, 빨치산 세대와 같은 혁명 선배에 대한 존대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식량 위기와 같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기존의 노선과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비장한 각오'이기도 하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내부 통제와 결속의 강화 등 보수적 개혁의 흐름일 것이며, 따라서 당과 군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입지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용주의적 개혁·

개방과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對南 강경책과 對美 유화책의 병행

對外·對南 정책에서는 對美 평화 보장 체계의 수립을 통한 대미 관계 개선을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공동사설은 대남 비방의 강도를 더욱 증대시키는 한편, 북한의 대남 위협론을 '뒤집어 놓은 북침론'이라 주장하며 남북 대결을 고취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간의 정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동사설은 여야를 싸잡아 부정 부패 집단으로 비난하면서, "남한에서는 인민들이 기대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고 하여,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환상(?)을 배제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을 배제한 채, 대미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대남 정책과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볼 때, 특별한 轉機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올해도 당국간 대화 등 남북 관계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대북 쌀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 당국의 공식 요청과 당국간 회담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동사설의 논조로 보아 북한이 이러한 전제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 경협에 전망도 다소 부정적이다. 공동사설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평화 보장 체계를 세우면 한반도의 정세는 완화되고 남북 합의서의 이행도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하여, 경제 공동주의 가동을 통한 남북 경협에 본격적 추진을 북미 관계 개선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 내부 결속과 남북 대결을 고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식량 등 경제난 해소를 위해 對美·對日 접근 외교를 보다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남 강경책과 대미 유화책의 병행인 것이다.

우리는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한·미·일 국제 공조 체제의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북한은 우리를 배제한 채 미·일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우송호 선원을 송환한 데 이어,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 동향과 식량 위기를 연계시키면서 한반도의 정세 안정과 북한의 연착륙을 이유로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1994년 한국이 배제된 채 진행된 북미 핵협상 타결 구도와 유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듯한 형국이다. 보다 신중하고 신축성있는 대북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完**